



## 피아노 선율을 실루엣에 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선율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탁영아.  
맑고 열정적인 그녀의 음악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그녀의 스타일을 통해 그녀가  
연주하는 음율을 청각과 시각으로 느껴본다.

9살 때 부산시향 협연을 시작으로 폴란드의 필하모니아 포모르스카, 루마니아의 올테니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줄리어드 심포니,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울산시향 등 굵직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그녀만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했던 피아니스트 탁영아. 활발한 실내악 연주자이기도 한 그녀는 뉴욕 현대음악 시리즈 시퀀자 21(Sequenza 21)을 연주하기도 했다. 또 작곡가 주디스 자이몬트(Judith Zaimont)의 초청으로 그의 작품 '위저드(Wizards, 2003)'를 음반으로 제작하며 현대음악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해석을 드러냈다. 지난 4월에는 3년 만에 고국을 방문, 독주회를 가졌다. 그녀만의 색깔로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 10-2', '몰레질하는 그레첸'과 '세레나데' 등의 슈베르트 가곡을 편곡해 연주하며 세련되고 우아한 피아노 선율에 목말라 있던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걱정과 우아함이 어우러진 피아노 선율은 그녀와 상당히 닮았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에 또렷한 눈매는 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 날카로운 시각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은 음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스타일을 통해 그녀의 음악을 들여다보았다. 음악가에게 의상 선택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연주회 때 선택하는 의상은 연주자는 물론 음악을 더 빛

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연주 때는 선정한 곡이나 계절에 어울리는 색상과 실루엣을 고려해 의상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나’ 라는 연주자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의상인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죠. 의상 선택 하나로 더욱 자신감을 얻고 프로페셔널하게 연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영주 컬렉션 의상은 그녀의 요구를 늘 만족시킨다. 첫 독주회 때 선택한 것도 이영주 컬렉션의 의상이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패브릭과 실루엣이 그의 연주와 아주 잘 어울렸기 때문. 〈Neighbor〉와의 만남에서 선택한 의상 또한 화사한 초록빛의 드레이프가 인상적인 롱 드레스였다. 이번 시즌 이영주 컬렉션은 명도 높은 그린과 블루 등의 컬러로 파란 구름과 연꽃빛 잎사귀를 닮은 자연의 느낌을 연출했는데, 이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노래하는 클래식과 잘 어울렸다. 이영주 컬렉션의 디자이너 이영주는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디테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이번 컬렉션이 피아니스트 탁영아에게 추천하고 싶은 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연주회가 아닌 평상시에 즐겨 입는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보았다. 그녀는 핏감이 감도는 크림 컬러 트위드 재킷을 선택했는데,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디테일이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로맨틱한 코르사주 장식을 더해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것도 잊지 않았다.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 페미닌한 프릴 장식이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다고. 또한, 음악회 관람이나 저녁 모임 등 포멀한 자리에 편안하게 입고 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컬렉션은 이번 시즌 안나 가발디의 소설인 〈아름다운 하루〉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그런 만큼 햇빛이 가득한 어느 날의 화사하고 행복한 느낌을 의상에 담았다고. 또한 천연 소재로 만들고 자연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어 입는 이들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 산과 들,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의 선율은 이영주 컬렉션과도 잘 어울려진다. 이렇듯 그녀를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세심한 의상 선택은 그녀의 음악을 미처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조차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기대하고 상상하게 한다. ■

에디터 이정은 사진 전택수 도움 주신 곳 이영주 컬렉션(02-3442-4801), 세미성(02-558-8403),

헤어 & 메이크업 정현정 파라팜(02-540-6353)

왼쪽 골드빛 원피스와 코르사주 장식의 재킷은 이영주 컬렉션.

오른쪽 섬세한 드레이핑과 보디테일로 아름다운 실루엣을 자랑하는 초록빛 드레스는 이영주 컬렉션.

